

독일 한국문화원에서 김치 체험행사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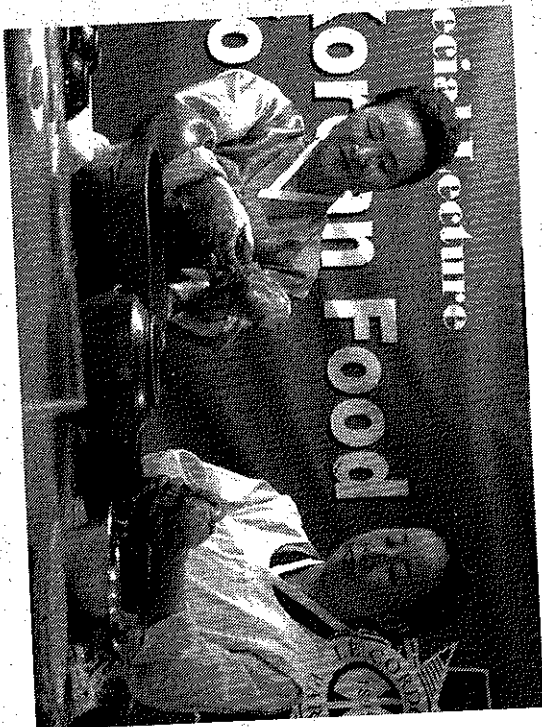
농림부(임상규장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장귀태사장)는 한국음식의 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들 동안 독일 베를린 주독일 한국문화원에서 독일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김장김치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주독 한국문화원 오존하우스 데이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인 김장김치 중에서도 통배추김치를 주제로 하여 배추다듬기, 절이기, 양념준비 및 혼합, 숙냉기, 저장 등 김치담그는 일련의 과정을 참가자가 직접 체험케함으로써 김치에 대한 관심도와 이

해도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참가자들이 직접 담근 김치는 그 자리에서 돼지고기 보쌈과 식 및 품평회를 갖게 되고, 남은 김치는 도시락에 담아가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치담그기 실습이전에 김치의 역사, 김치의 과학성, 김치의 효능 등에 대한 강의를 곁들여 김치를 좋아하는 메니아들이 체계적으로 김치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행사장에는 김치의 역사, 김치의 효능, 주요 재료 등 김치에 관한 모든 것을 배너로 전시하고 김치책자를 무료로 나누어 주어



2006년도에 파타르 코르도블르 요리학교에서 개최된 전통음식연구소 윤숙자교수의 김치담그기 강의 장면

김치담그기 실습이후에도 가정에서 김치를 담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이후 외국인들의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김치의 세계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러한 체험행사를 하게 되었다고 김치 담그기 체험행사를 주관한 로테르담 at센터 김동욱 지사장은 말한다.

한편 한국문화원에서는 김치담그기 체험행사 이외에도 한국 전통악기 연주체험, 한국전통의 화점 시연, 한민정음 탁본, 전통민속놀이 체험등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기사제공: 농수산물유통센터
앙스테르담 지사